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신규 이슈 부재 속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0일(화) 미국 증시는 신규 호재가 부재한 가운데, 신용등급 강등 여진 및 미 예산안 불확실성, 금리 상승 등이 차익실현 유인을 제공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로 마감(다우 -0.3%, S&P500 -0.4%, 나스닥 -0.4%)

5월 이후 주식시장은 미중 관세 협상발 호재로 상승세를 연출한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는 과정에 있음. 1분기 실적시즌은 종료된 만큼, 정책 측면에서 그 모멘텀을 찾아봐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확보하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

감세를 포함한 예산안은 정치권 내 의견 차이로 이번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임. 전일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지적했듯이, “관세로 인한 기업들의 가격 인상 → 인플레이 상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인하에 보수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음. 결국 5월 말 엔비디아 실적, 6월 초 고용, ISM 제조업 PMI 등 굵직한 이벤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선방한 미국 증시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IRA 폐지 우려 재확대에 따른 이차전지주 약세, 조선, 방산 등 주도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전장 후락의 장세로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3%).

금일에는 미국 정치 노이즈, 주요국 금리 상승 경계심리 등으로 지수 방향성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 업종 측면에서는 장중 발표되는 한국 5월 수출(~20일), 대선 관련 정책, 개별 기업 이슈 등에 따라 관세 피해 vs 무풍주, 정책 테마주들 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일 전망.

한편, 코스피에서 작년 8월~ 올해 4월까지 9개월 간 38조원대 역대급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인은 5월 이후 1.3조원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이는 셀코리아 장기화에 따른 수급 빈집, 밸류에이션 매력 등에서 기인. 이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셀 코리아에서 바이코리아로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

이렇듯 외국인 바이코리아는 예열 국면에 들어갔지만, 그 순매수의 강도는 공격적이기보다 점진적인 형태를 띠 것으로 판단.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큰 충격이 없었어도, “관세 여진 및 그에 따른 경제지표와 이익 전망의 불확실성”이라는 기존의 시장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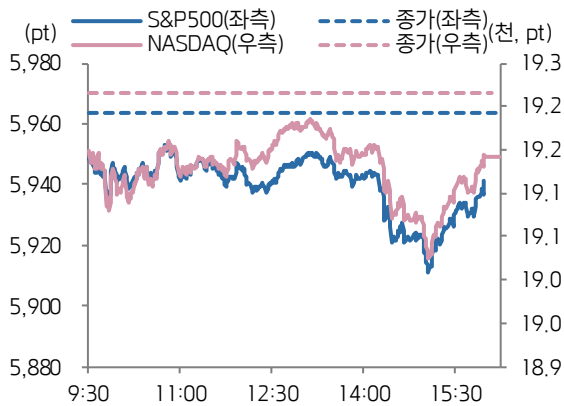
업종별로 5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를 확인해보자 비슷한 결론에 도달. 반도체(+5,900억원), 자동차(+1,270억원) 등 관세 피해 수출 대형주들도 있지만, 기계(+5,550억원), 조선(+3,150억원), 화장품(+1,910억원), 은행(+1,220억원) 등 관세 무풍주 성격의 업종이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

(다음 페이지 계속)

물론 5월 이후 1,400원대를 하회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원화 강세)이 외국인에게 단기 환차익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함. 통념적으로 원화 강세는 “대외 경기 호조 → 한국 수출 등 경기 펀더멘털 강화 → 외국인의 한국 증시 투자 매력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맞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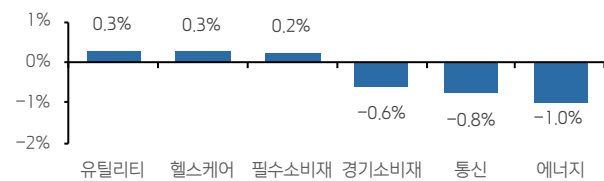
다만, 최근 원화 강세에는 한국 정부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일환으로 원화 절상 가능성이 내재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강세가 아닌, 인위적인 원화 절상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국내 주력 업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 → 외국인 순매수 중단”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 유의. 결국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신정부와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협상 과정과 5~6월 중 관세 여진 확인 과정을 치르고 나서야 외국인의 순매수 연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로 접근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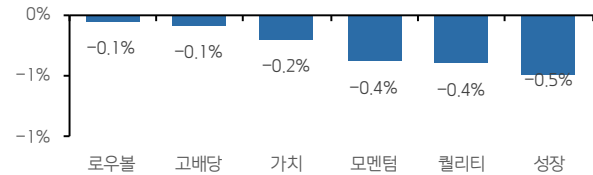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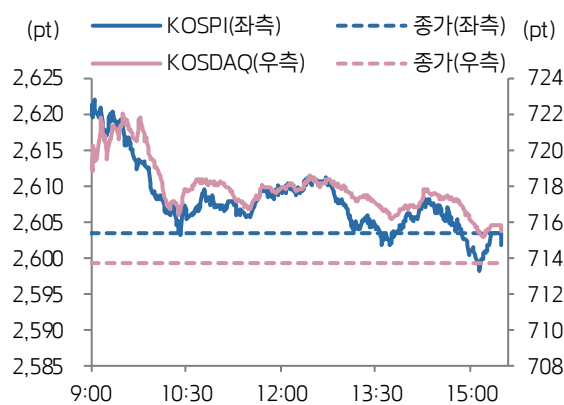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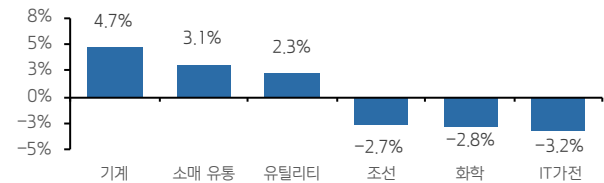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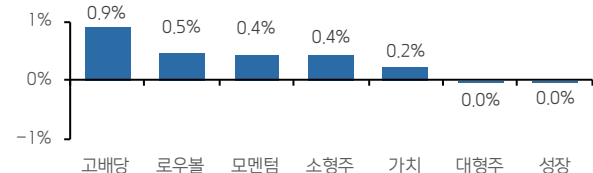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6.86	-0.92%	-17.2%	GM	50.21	+0.36%	-5.5%
마이크로소프트	458.17	-0.15%	+9.12%	일라이릴리	747.01	-1.07%	-2.87%
알파벳	163.98	-1.54%	-13.28%	월마트	97.80	-0.33%	+8.81%
메타	637.10	-0.52%	+8.91%	JP모건	265.68	+0.3%	+12.09%
아마존	204.07	-1.01%	-6.98%	엑손모빌	104.95	-1.43%	-0.66%
테슬라	343.82	+0.51%	-14.86%	세브론	137.27	-0.88%	-3.01%
엔비디아	134.38	-0.88%	+0.08%	제너럴일렉트릭	97.80	-0.3%	+8.8%
브로드컴	231.68	+0.46%	+0.23%	캐터필러	349.49	-0.87%	-2.84%
AMD	113.51	-1.07%	-6.03%	보잉	207.67	+1.18%	+17.33%
마이크론	98.10	-0.56%	+16.72%	넥스트에라	74.41	+0.7%	+4.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01.80	-0.06%	+8.43%	USD/KRW	1,394.40	+0.41%	-5.29%
코스피200	347.02	+0.13%	+9.19%	달러 지수	100.12	-0.31%	-7.71%
코스닥	715.55	+0.25%	+5.51%	EUR/USD	1.13	+0.38%	+8.97%
코스닥150	1,144.07	-0.3%	+1.26%	USD/CNH	7.22	+0.01%	-1.67%
S&P500	5,940.46	-0.39%	+1%	USD/JPY	144.51	-0.24%	-8.07%
NASDAQ	19,142.71	-0.38%	-0.87%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2,677.24	-0.27%	+0.31%	국고채 3년	2.332	-2.9bp	-26.3bp
VIX	18.09	-0.28%	+4.27%	국고채 10년	2.722	-2.3bp	-14.9bp
러셀2000	2,105.58	+0.05%	-5.59%	미국 국채 2년	3.970	-0.6bp	-27.1bp
필라. 반도체	4,890.78	-0.14%	-1.79%	미국 국채 10년	4.487	+4bp	-8.2bp
다우 운송	14,962.64	-1.03%	-5.87%	미국 국채 30년	4.970	+6.7bp	+18.8bp
상해종합	3,380.48	+0.38%	+0.86%	독일 국채 10년	2.606	+1.8bp	+23.9bp
항생 H	8,589.08	+1.52%	+17.8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186.44	-1.06%	+3.9%	WTI	62.03	-0.18%	-11.1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5.38	-0.24%	-12.41%
Eurostoxx50	5,454.65	+0.51%	+11.41%	금	3,312.60	+1.57%	+21.93%
MSCI 전세계 지수	881.62	-0.09%	+4.79%	은	32.98	+2.06%	+12.78%
MSCI DM 지수	3,870.03	-0.11%	+4.37%	구리	461.95	-0.3%	+14.73%
MSCI EM 지수	1,167.46	+0.07%	+8.55%	BDI	1,347.00	-2.95%	+35.11%
MSCI 한국 ETF	58.40	-0.71%	+14.76%	옥수수	454.50	+1.56%	-3.04%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46.00	+3.21%	-4.13%
비트코인	106,953.20	+1.39%	+14.13%	대두	1,053.00	+0.21%	+1.76%
이더리움	2,514.34	-0.26%	-24.87%	커피	369.30	-1.44%	+19.7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2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